

효과적인 학교교육요소에 근거한 좋은 중등학교 척도개발을 위한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정순모[†] · 백현기^{††}

Exploratory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Developing a Good
Secondary School Scale based on the Factors of the Effective
Schooling

Soon-Mo Jung[†] · Hyeon-Gi Baek^{††}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Good School and to validate an effective Good Secondary School Scale in Kyung-gi Province and Seoul. As statistical methods, SPSS 13.0 and AMOS 5.0 were used.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were conducted to test the reliability of items and the factor structure.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was conducted to test the validity and fitness of the Good School Scale. The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six factors(school environment, curriculum, teacher, school-based management system, director) will increase the good schooling effectiveness. Second, As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the goodness of fit indices(GFI, AGFI, CFI, RMSEA) demonstrate statistically significance and fitness of the model. The final Good School Scale supports 6 Good School Factors obtained in main test. Therefore, we can say that this scale can be used as a valid instrument to measure a real Good Schooling Effectiveness at the secondary school situation in Korea.

Key Words : Good School(ing), Effective Good School Sca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좋은 학교란, 최근까지도 국내외 공히, 효과적인 학교로

통용되어 왔다. 그래서 '학교효과성연구의 성과물들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학교 개념을 재정의 하거나 좋은 학교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개발을 할 때, 하나의 이론적 출발점으로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5, 46, 65, 82].

학교효과성연구는 1970년대 중반부터 10년 간격으로 변증법적으로 3단계로 전개된 서구 선진국들의 학교효과개선 논쟁의 중심축이었으나,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그 연구의 편협성으로 인해 학교개선연구에 중심무대를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과정

^{††} 전주교대 컴퓨터 교육학과 겸임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08년 5월 4일, 심사완료: 2008년 6월 5일

넘겨주고 제2선으로 물러나 있다. '학교효과성연구가 조직개선의 관점에서 투입-변환-산출이라는 제품(학생의 학업성취도)생산의 위계적 조직구조를 엄격히 평가하는 관점이라면, 학교개선연구는 학교문화(school culture) 및 학생의 변화과정(change process) 중심의 교육과정 요소들을 찾는 방법(how)에 몰두'[20, 64, 65, 72, 74]하는 포괄적 관점을 지닌다. 그러나 관점(모형)이 어떤 것이든 위 두 연구는 궁극적 목표로서 효과적인 학업성취(academic attainment)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교효과성연구는 학교개선연구에 기초정보 제공자로서 역할'[78]을 해오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교육환경 하에서 이 두 종류의 학교교육 연구활동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조직효과성 개념과 달성원리를 교육활동의 산출물(학업성취도)에 적용했던 학교효과성 연구자들이 찾아 낸 자율적 단위학교책임경영(school-based management)이란 개념은[18, 37, 71], 공교육 위기의 원인치료를 변화관리능력의 배양과 실천과정에 둔 학교개선(개혁)연구자들의 학교 개선전략모형 개발과 실천프로그램으로 확장 전이되어 있다[80].

그래서 과거 수십 년간 미국, 영국을 비롯한 다수의 산업화된 국가들의 교육개혁정책들의 공통점은 성공적인 학교(좋은 학교)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전략을 탐구하기 위해 학교효과성 논쟁의 결과뿐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학교개선연구의 성과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학교 만들기를 논할 때, 학교효과성연구의 성과는 <좋은>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복잡한 맥락(문화)적 의미규명 이후에 새롭게 발견되어야 할 2차적인 주제일 뿐이다. 왜냐하면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한 무수한 담론과 기하학적 물량투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지상에 좋은 학교 만들기의 성공사례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결국 학교효과성연구도 학교개선연구도 좋은 학교 만들기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며, 따라서 확장된 제3의 학교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본 연구자는 그 제3의 학교연구를 학교교육을 보는 철학적 사회맥락적 관점의 폭과 깊이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고, 본 연구의 좋은 학교 개념재구성과 척도개발 작업의 이론적 기초를, '일반적으로 좋은 학교와 동의어로 사용되어 온 효과적인 학교(effective school) 연구의 성과들에 기초'[25, 60]를 두되, 1980년대 이후 교육개선(개혁)운동의 성과들, '학교교육의 본질적 정의'[41], 그리고 학교교육 역시 하나의 제품(product)으로서 교육소비자(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

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의사소통접근법을 반영한 교육마케팅이론, 최근의 맥루한(H. M. McLuhan)의 매체이론 및 '교육공학적 지식의 수업(학습-교수) 효과성을 위한 다차원적 상호작용전략을 강조하는 몰입수업(교수-학습)이론'[19, 23] 등의 관점도 포괄하려고 했다.

그래서 본연구의 의의는, 첫째, 좋은 중등학교 척도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구체적인 방안 하나를 마련함으로써 몇 가지 유의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둘째, 최근의 좋은 학교 관련 논의의 성과들이 교육매체의 급속한 발전에 비례하여 국가차원을 넘어 국제적 관심사로서 확장·심화 되고 실시간으로 교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좋은 학교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 데 있다. 특히 국내외 공히 각각의 교육여건에 따라 좋은 학교 및 핵심구성요소에 대한 개념이 서로 상이하어, 그에 따른 측정도구(척도) 역시 서로 이질적인 면이 많아 수용과정에 혼돈이 있었다. 더구나 좋은 학교의 개념정의 및 좋은 학교 핵심요소 추출, 그리고 그 핵심요소 간 관계모형 탐색과정에 대해 본 연구처럼 포괄적이고 동시에 한국 고유의 의사소통구조를 염두에 둔 좋은 학교개념 및 척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답보상태에 있는 좋은 학교론에 시사점을 주는 하나의 도전적 시론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그래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목적과 2가지 연구문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좋은 학교 모형과 관련한 문헌고찰 및 검사도구를 탐색하고 이것을 토대로 좋은 학교를 포괄적인 관점으로 재개념화하고 그에 따라 핵심구성요인과 하부구성요인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철학적 학문적 관점으로 기술된 선행연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사전조사단계에서, 좋은 학교의 성공여부를, 학교효과성과 학교개선의 초점인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활동인 수업(교육, 교수-학습)과정을 중심에 두되, 학부모 및 지역행정가의 참여적 지원환경 하에 민주적 변화관리전문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속적 열정과 헌신하는 태도를 가진 교장의 종합적 지도성 발휘가 전제되는 자율적 학교단위책임경영,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상보적 원격(배분적) 학습지원체제 등이 적절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보아, 좋은 학교를 구성

하는 핵심하위요인으로, 환경요인, 교육과정요인, 교사요인, 책임경영요인, 학교장요인, 사이버학습체제요인, 학생요인, 학부모요인 등 8가지 이상으로 잠정 설정하였다.

여기서 마지막 요소인 원격학습(배분적 지원)체제는, '21세기 유목민적 사회(nomadic society)에 부합하는 한국교육철학적 특성, 좋은 학교교육(schooling)의 본질적 정의[73], 디지털 미디어 및 정보통신기술의 놀라운 융합이 주는 시너지 효과를 정보격차 예방교육 차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적재적소에 배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배분적 교육(Distributed education, 모든 학생의 개선기회 부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원격교육과 차이)의 관점'[62, 63, 66], 이와 동시에 모두 윈윈(win-win)하는 21세기적 상생적 지혜가 인류최초로 멋지게 개념화된 홍익인간(한국교육법 제2조)적 도덕성 육성의 시공간으로서 인간중심적 디지털 학교문화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설정되었다.

둘째, 좋은 학교의 구성요인을 토대로 좋은 학교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법(comprehensive approach)은, 지금까지의 산출물 중심의 효과적 학교연구의 객관주의 교육적 범주를 넘어, 과정중심의 유연한 교육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교육관점을 강조하는 21세기 국제사회의 맥락, 그리고 교육의 보편적 본질을 강조하는 교육철학 및 단위 학교별 독특한 내외적 조건 등에 대한 총체적 반성에 기초한 변화역량 제고 및 실천전략개발능력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복합적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는 '과거 30여 년 간 국내외에서 추진되어 온 교육개선운동의 성과들, 특히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좋은 학교 관련 정책들과 전략안 및 평가연구 성과들의 재검토'[42]를 통해, 21세기 국내외 교육환경에 적합한 좋은 중등학교(본 연구에서 좋은 초등학교 모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부합되지 않아 일단 제외)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학교 평가도구(척도)를 개발하려고 하였다.

셋째, 위의 관점에 의거하여 개발된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및 구인타당화 작업을 통하여 중등학교용 좋은 학교 검사도구(척도)를 개발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는 첫째, 중등학교 학습자들의 좋은 학교를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인가? 둘째, 본 연구에서의 중등학생용 좋은 학교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는 어떠한가? 이상 2가지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좋은학교의 개념과 특성

좋은 학교란 본질적으로 정의가 불가능 할 정도로 다의적(多義的)이고, 주관적이고, 복합적(複合的)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떤 측정요인 및 척도 개발이든 잠정적인 가치 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받기 어렵다. 그러나 좋은 인간, 좋은 인생, 좋은 교육, 좋은 교사 처럼, 좋은 학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편적 정의와 구성요인영역에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방법과 타당성이 있는 합의사항을 개별 학교의 주어진 맥락적 특수성과 적절히 조화시킨다면, 적어도 학교교육 활동의 목적과 방향, 과정과 결과의 효과성과 효율성과 능률성 평가와 피드백에 유용하다고 여겨진다[16, 17]. 예를 들어, '국내외 상관없이 좋은 학교라고 추정되는 2개 이상의 중등학교의 특성들을 상호비교함으로써 비교대상학교 서로서로의 개성(장점)을 발현시키는 요인들-즉 학교의 독특한 문화 및 학교별 수월성의 원동력으로서 특성(요인) 또는 공통요인들-을 반복 유추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좋은 학교의 공통구성요소, 때로는 일반모형까지도 도출해 낼 수'도 있고[52, 54], 비교대상 학교의 전체 교육활동 중 구성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학교효과는, 해당학교의 장점으로서 남다르게 좋은 학교가 될 특징적 요인이 된다.

그래서 유재봉[43] 등은 '좋은 학교란 학교를 교육 혹은 학교의 개념 혹은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음 3가지 이상의 입장(본질적, 규범적, 유사한 용어분석 및 비교)이 있다'고 하면서도, 좋은 학교는 하나의 단일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학교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이 다원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 좋은 학교의 개념은 고정적이기보다는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거의 같은 입장이지만, William Glasser[69]가 주장한 질 좋은 학교(quality school)를 신봉하는 Robert A. Sullo[86]는 '모든 좋은 학교들은 다양성과 독특성이 있지만, 그러나 공통으로 3가지 변인(강압과 두려움 추방노력을 하는 학교, 질 높은 학업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는 학교,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명백하고 체계적인 자기 및 공동평가가 있는 학교)이 있다'고 하면서 '학교활동 도처에서 발견되는 비민주적 위계적 구시대적 사고의 근절이 없이는 좋은 학교는 불가능'[86]하다고 했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문헌연구들을 통해 잠정적으로 적어도 5가지 이상의 관점으로 좋은 학교를 정의 할 수 있었

다. 1) 학교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보면 좋은 학교는 교육이나 학교의 보편 개념적 기준 혹은 본질에 충실한 학교이기도 하고, 2) 규범(가치,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좋은 학교는 궁극적으로 적어도 교육을 무기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가치 있고 바람직한 흥의 인간적 특성적 능력(skills)을 가진 정의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3) 신자유주의적 교육마케팅 관점에서 학교효과성과 학교개선적 관점에서 학업성취 측면을 강조하는 산출물 중심의 효과적인 학교이기도 하며, 4) 질 좋은 관점에서 보면 좋은 학교는 어떤 비인간적 억압이나 두려움 없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적 관계로 개성에 부합하는 자기확신적 자아실현으로 심리적 행복감과 자기 충족감을 주는 학교이고, 5) 위의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다원적 조건들을 포괄적으로 감안한 본 연구의 관점에서 좋은 학교란, 시간적·공간적 맥락의 흐름(flow)에 적합한 열린 방법으로 학생들의 자기실현을 촉매하여 몰입이 가능하게 하는 학교 등이다.

2.2 좋은 학교 측정변인 연구

위의 이론적 변인 추출과정에서 좋은 학교란 관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며, 따라서 좋은 학교를 구성하는 핵심변인 역시 관점에 따라 무한히 다를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핵심구성요소가 10개이든 20개이든 그 숫자의 의미는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47]. 왜냐하면, 좋은 학교의 개념은 고정적이기보다는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래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즉 21세기 지금 여기에서 좋은 학교는 평생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해야 할 시대적 공동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 현재 예측가능한 경향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변화뿐'이라는 말처럼[84],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아도 '좋은 학교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화된 시공간적 격차로 촉발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동적 변화(change) 능력을 가진 학교'이다[67, 68, 70]. '오늘 좋은 학교라고 해서 내일도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오늘 나쁜 학교라고 해서 미래에도 나쁜 학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좋은 학교 연구는 그 자체가 도전의 영역'이다[40, 50]. 실제로 Duke(1986)나 Northon(2005)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적 교육학자들은 '교육주체들에게 참여적 지도력(leadership)의 미학적 분산(aesthetic distribution)을 주장하면서 교육을 설명하기 위해 철학, 예술, 윤리, 정치, 공연예술, 문화의 관점들'을 동시에 활용'한다[31, 32]. 이런 관점에서 학교교육은 '어떤 학교가 어느 정도 좋은 학교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척

도들은 그 자체가 혼돈(chaos)철학의 나비효과'처럼[20] 맥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술미학의 영역이 된다. 그래서인지, 긴 논쟁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정기섭[51], 조난심[55, 56] 등 몇 가지 시론들은 있으나, 현재까지 완성된 좋은 학교 척도는 찾을 수 없었다. 좋은 학교 척도개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내에 소개된 국외(독일,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학교척도 자료들 역시 많지 않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과거 20년 간 한국과 외국(독일, 미국, 영국)의 '교육개혁운동가들이 연구한 새로운 학교선택기준들, 특히 독일의 알트리히터(H. Altrichter) 교수의 연구,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의 좋은 학교선택기준, 그리고 그 외 독일의 주요 주간지 『슈테른』(Stern, 2002. 5)의 좋은 학교에 대한 평가기준'[4] 등과 '영미의 학교개혁 성과논의 및 몇 가지 교육과정 관련척도'[87]들 등이 있다.

미국의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은 학교가 학습에 효과가 있으며 효과성을 확보하는 전략실천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데는 공헌 하였으나 지나치게 결과중심으로 전개된 학교효과성 연구담론(1단계)에 대한 비판적 극복방안(2단계)으로 탄생한 새로운 미국학교운동의 구체적 형태인 협약학교(Charter School)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협약학교는 교육재정을 엄청 투입하고도 학생의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선택의 자유와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성취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학교에 관한 논의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학부모와 개혁적인 공립학교 교사들이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선택을 탐색하면서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91년 미네소타 주가 협약학교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고 다음해 설립한 것이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협약학교법에는 ①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증진시키는 일, ②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증가시키는 일, ③ 혁신적인 교수법 사용, ④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혁신적 방법 창출, ⑤ 교사를 위한 새로운 전문성 제고 기회 마련 등 5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협약학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 다양한 관점의 좋은 학교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3단계). 영국의 좋은 학교 만들기 기의 가시적 노력은 1988년 교육개혁법(ERA)에 의해 도입된 국고직영학교(GM schools)와 2000년에 도입된 아카데미(Academi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및 평가척도 만들기 역시 미국이나 영국과 대동소이 하게 3단계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1단계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의 학교효과성연구라고 한다면, 2단계는 공교육의 위기담론이 보편화된 1990년대 중반부터 학업적 산출결과물을 넘어 교

육과정상의 질적 관리 및 학교교육 전반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현실 개선(개혁)운동으로 새롭게 전개되면서 재구조화된 학교(restructured school)[79], 질 좋은 학교(Quality School)[30], 내실화(內實化)된 학교[55, 56] 등으로 확장된 단계이고, 3단계는 2003년경부터 시작하여 2005년 서울교육청 등 전국 11개 교육청이 경쟁하듯 '교육격차 및 사교육경감 정책으로 좋은 학교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평가안을 마련하여[38, 49, 54] 실시하고, 그것에 대한 이론적 지원정책안으로 2007년 8.16~2007.10.10까지 대통령자문 교육위원회가 발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교육비전 2030) 초안 및 확정안[21, 22]까지의 교육개혁 실천과정사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국내의 것과 종합하여 한국에서 유효한 좋은 학교의 공통된 척도(판별기준)를 구축해 보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좋은 학교'(Good School) 탐구범위는 효과적 학교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교육개선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 그리고 최근의 좋은 학교 시범학교들의 성과들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3.1.1 예비검사

좋은 중등(중·고)학교 모형탐색을 위한 검사도구(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전 설문자료를 갖고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남녀 중·고등학생들로 서울지역에서는 H고, J고, B중학교,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S고, F고, E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300명을 반별로 고르게 50명씩을 임의표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를 제외한 총 250명(남 113명, 여 137명)이 예비검사에 참여하였다.

3.1.2 본 검사

본 검사에 참여한 남녀 중·고등학생 역시 서울 및 경기지역 총 430명이며, 성별의 비율은 1대1로 임의표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을 했거나 이중표기 및 한 문항씩 밀려서 표기한 응답자를 제외한 남학생 190명 여학생 202명 총 392명을 최종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검사에 참여한 중등학교는 비교적 좋은 중·고등학교로 알려진 S고, Y고, K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J고, S고, T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예비검사 때와 동일한 학교대상자는 제외시켰다.

3.2 검사의 제작절차

3.2.1 사전검사 문항의 구성

중등학생용 좋은 학교 검사도구 개발을 위해, 일차적으로 선행연구 자료의 검토결과를 갖고, 전국 초·중·고·대학의 교육전문가(교수, 교사) 10여명과 협의를 통해 사전검사용으로 109문항을 만들고, 서울의 H, K고등학교 및 S, K중학교 1, 2, 3학년 각 50명 300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좋은 학교 구인만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3명의 별도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 좋은 학교를 구성하는 핵심요인을 잠정적으로 총 8개, 즉 환경요인, 교육과정요인, 교사요인, 책임경영요인, 학교장요인, 사이버학습체제요인, 학생요인, 학부모요인-로 재구성하였다. 이어 위 3명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8개 핵심요인을 정의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도록 109문항을 분류하였다.

3.2.2 예비·본검사 문항의 구성

예비검사단계에서, 사전 검사 결과 추출된 8요인, 총 109문항을 새롭게 구성된 현직 중·고교 교사 6명(고교 3명, 중학교 3명)의 도움을 받아 문항의 내용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총 8요인, 총 65문항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이어 선정된 총 65개의 문항을 설문도구로 사용하여 설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갖고 총점과 문항 간 상관계수를 구하여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을 1차적으로 제거하였으며, 탐색적·확정적 요인분석에 따라 고유치 1.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은 문항은 삭제하였다. 이어 요인내 문항 간 신뢰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타당한 문항을 선별, 수정, 추가하였다. 그 결과 6개 요인에 23개 문항이 채택되었다. 이 예비검사 결과를 가지고, 예비검사와 동등한 방식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여, 6개 요인간 상관도와 더불어, 23개 문항의 해당 핵심요인에 대한 유의성 및 모형의 적합도 등을 검증하였다.

3.2.3 검사의 제작과정

본 검사의 제작과정은 크게 10단계로 분류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1) 문헌고찰을 통한 좋은 학교의 재개념화 및 요인영역 결정 2) 예비검사의 문항제작 3) 예비검사의 내용 타당도 검증 4) 예비검사의 실시 5) 문항분석실시 6) 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7) 문항의 수정 및 삭제 8) 본 검사 문항의 선정 및 실시 9) 본 검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0) 최종문항 선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제작되었다.

3.3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예비검사 단계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라 고유치 1.0이상의 문항만을 선택한 후, 이어 요인내 문항 간

신뢰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타당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핵심요인 6가지 요인관련 선행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9, 10, 11, 15, 26, 31, 37, 42, 48, 51, 52, 54, 57, 58, 59], <표 1>처럼 조작적으로 재개념화 하였다.

<표 1> 좋은 학교 하위요인의 개념적 정의 및 문헌

| 하위요인 | 개념적 정의 | 문헌연구 |
|---------|--|---|
| 환경요인 | 학생-교사-학부모-지역민 등이 학교생활 일체, 즉 적정인원의 학생과 교사배치로 도전적 학업성취중심학습 및 자율적 학생조직문화상급장학관 및 교장, 학생, 교사 간 비전(철학, 사명)공유의 수평적 의사소통체제를 가진 자율적 교육공동체 문화, 건설적 교장-교사-학생 매개적 학부모 참여, 높은 학교구성원(학습자, 학부모, 지역인사) 상호참여적 기대, 온정적 규칙적용 및 일관성, 성공적 수업경영 촉진지향 자체평가체제 및 타과목 교사 및 교직원 상호협력적 교육공동체문화 등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거나 느끼는 긍정·부정적 정서 및 내적 평가감 일체 즉, 불안감, 우울감, 자아조절감, 기대감을 포함하는 정서적 안녕감(sense of emotional well-being), 가정 및 학교에서의 학부모 및 세금부담자의 교육적 역할 만족감(satisfaction sense of the parents' educational role)의 기반이 되는 직·간접 학교교육지원환경 [4, 44, 3, 6, 13, 14, 54, 81] | Mortimore, 1999; Slavin et al., 1996; Hopkins, 1999; Levine, 2002; Teddlie & Stringfield, 1989; Hallinger & Murphy, 1991; Fullan, 1991; Hopkins, 2001 |
| 교육과정요인 |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비율을 극대화, 학습자 수준과 적성에 적합한 일반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진로, 적성, 상담, 특별활동)운영, 예방적 온정적 수용적 돌봄의 학급학습 및 최적의 학생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상호작용적 일반 및 특별교육 시간극대화 환경조성이 효율, 효과, 매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39, 9, 77, 81] | teddlie & Stringfield, 1989; Tanner & Tanner, 2007 |
| 교사요인 | 학생을 위한 동료교사 및 학교장과의 상호작용적 효율적 수업운영권, 모든 학생에 대한 일관된 지속적 높은 기대와 다양한 교수방법에 의한 개별적 동기화, 실제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간 상호촉진적협력, 학생의 권리와 책임감을 강조하고 친밀한 조직활동적 학습을 유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의 학습하는 학습공동체의 일원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전문성 개발에 열정을 가진 교사 [32, 27, 53, 61, 76] | Hopkins, 1994; Bain, 2004; Borich, 2007, |
| 책임경영요인 | 단위학교 책임경영(school-based management)요인이란 단위학교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의사결정권 공유를 통해, 인사관리(교사임용 및 인사 등), 교육과정운영, 재정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학교경영체제로서 공교육 위기의 원인치료를 변화관리능력 육성과 실천에 두는 학교개선전략모형 및 실천프로그램 [45, 29, 15, 34, 35, 75, 83] | Hargreaves & Hopkins, 1991 |
| 학교장요인 | 확고한 목적(과업) 및 변혁지향적인 지도성, 중간관리자, 교사의견 존중을 통한 전문적 지도성을 배분적으로 공유하는 참여적 지도성 기능, 학교에 대한 신념 및 수업목표 개발전달기능, 수업장학 및 학생진보점진 등을 통한 교육활동 생산관리기능,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질 높은 만남과 기대유지로 학구적 학습풍토조성과 전문성촉진활동 등 학구적 학습풍토조성기능, 학생과 교사의 참여적 협력유도 및 외부자원, 가정, 학교 간 연계활동 등으로 지원적 근무환경개발기능, 교직원과 일상적 비형식적 대화로 의사결정과정 지도조언 및 과업수행 수시점검 등을 통한 순시경영기능 등을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게 잘 수행하는 교장 [24] | Teddlie & Stringfield, 1989; Richaret et al., 2007; Reynolds et al., 2002; Mcneil, 2006; Murphy, 1990 |
| 사이버학습체제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유용한 사회적·인적 자본이라기보다는 취업수단이 강조되는 유·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형식교육 이수(졸업)가, 취업이후에도 개인능력 유지로서의 평생교육의 시작()이라는 미래지향적 의미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관점, 즉 시간과 공간, 온라인/오프라인에 구애받지 않고 사이버(원격)전달시스템(cyber carrier media)을 형식교육과정에 상생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웹기반 학습환경 또는 웹기반 학습공동체를 말한다. 여기서 웹기반 학습환경 또는 웹기반 학습공동체란 '형식교육 대안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자기주도적 잠재력 개발기회 제공, 학습내용의 협력적 심층이해 및 통합기회 제공, 구성원 간 공동관심사와 목표와 경험과 관계형성을 위한 책임감 공유 기회를 주도록 상호작용수준이 극대화된 웹기반 원격-분산학습공동체'(distance-distributed learning)를 말한다. 여기서 원격-분산학습공동체란 연구자가 재정의한 용어로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WEB, CD 및 DVD로 배포될 수 있는 WBI, 컴퓨터기반 교육훈련(CBT), 기타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전기장치와 과정을 교육전반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 전자학습(e-learning) 또는 온라인학습(교수의 양과 제공조직화 유형이 다른 WBI, WEI, WSI,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 등을 포함)을 통해 전통적 교육의 시공간 제약을 뛰어 넘어 학습기회를 제공(Center for Distributed Learning of California, 2004)하기 위해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공동체(communitiy)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 운영자, 콘텐츠와 상호작용면에서 비효과적인 면대면 교육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한 체제이론적 사이버학습체제 구현으로 수업의 질적 변혁과 실용적 효과성을 거두는 기능을 최적·최대화 하는 형식교육 대안적 학습체제이다. [1, 2, 36, 7, 28, 30, 8, 48] | Davison-Shivers et Ramussen, 2006; Bersin, 2003 |

3.3 좋은 학교 하위요인별 검사문항의 예

본 연구에서 검사문항은 사전검사 초기에 총 109문항으로 만들어졌으나, 사전검사 실시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함께, 문헌연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분류, 재영역화, 정교화, 재수정되어 예비검사 초기에 몇 단계 검토를 통해 6개의 핵심요인에 65개 문항으로 축소되고, 이어 예비검사를 통해 6개 요인에 23개 문항으로 재축약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론변인별 하부문항의 예는 다음 <표2>과 같다.

<표 2> 좋은 학교 하위요인의 세부검사문항

| 하위 요인 | 검사문항의 예 |
|----------|--|
| 환경 요인 | Q1 교육이념과 목표 Q2 인적구성 비율 Q3 상급기관관계 Q4 학생 선발방법 Q5 위원회구성 Q6 의사소통 Q7 학생회역할 Q8 성취 및 진학률 |
| 교육과정 요인 | Q9 일반교육과정 Q10 특별프로그램 |
| 교사요인 | Q11 타과목 교사간 교육과정 협력 Q12 학교장과의 관계 Q13 학생과의 관계 |
| 책임경영 요인 | Q14 교원임용 및 인사 Q15 교육과정 운영 Q16 재정 |
| 학교장 요인 | Q17 비전 및 교육철학 Q18 학교장의 권한 Q19 학교장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 Q20 학교장 임용절차 |
| 사이버 학습체제 | Q21 사이버 가정학습 이용자의 측면 Q22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의 측면 Q23 콘텐츠 측면 |

3.4 자료의 분석방법

중등학생용 좋은 학교 척도개발을 위하여, 우선 예비검사단계에서 사전검사 문항을 교육공학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고등교사 5명에게 내용검토를 의뢰, 내용타당도를 수차 검증받아 수정 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 받은 후, 그 결과를 갖고 또 다시 예비검사에서의와 같은 상관관계 및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치는 본 검사를 실시, 검사의 구인타당도를 확

정 검증하였다. 모든 자료의 처리는 SPSS 13.0 프로그램과 AMOS 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4. 연구결과

4.1 예비검사의 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중등학생용 좋은 학교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좋은 학교와 관련한 연구문헌을 고찰하였고 또한 이것을 토대로 좋은 학교의 주요구인을 설정하였다. 8개 이상의 요인으로 구성된 좋은 학교 검사는 총 65문항으로 제작되었고 300명의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좋은 학교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분석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요인분석의 모형으로 주성분분석을 선택하여 각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회전방식으로는 직교회전인 Varimax 방법을 선택하였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Scree Plot을 이용하여 적절한 요인수를 6개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요인1을 환경, 요인2를 교육과정, 요인3을 교사, 요인4를 책임경영, 요인5를 학교장, 요인6을 사이버학습체제로 명명하였다. 또한 고유치는 1.0을 기준으로 하였고 요인부하량은 3.0이상, 그리고 공유치는 4.0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하여 최종 채택된 문항은 총 23개 문항이며 검사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0.87로 나타났다.

4.2 본검사의 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예비검사의 요인분석결과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전방식으로는 예비검사와 마찬가지로 바리맥스방법을 사용하였고 요인부하량이 3.0이상, 그리고 공통성이 4.0이상인 문항만을 선별하였다. 이상과 같이 진행된 요인분석의 결과는 전체 23개 문항, 6개 요인에 부하되었다. 따라서 본검사의 요인분석 결과는 환경, 교육과정, 교사, 책임경영, 학교장, 사이버학습체제 6개 요인으로 타당화 되었다. 이상과 같은 최종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의 과정을 통해 고유치 1.0이상 요인부하량 3.0이상 공유치 4.0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하여 총 23개 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23개 문항과 각 문항의 요인계수를 아래 표에 제시해 보았다.

〈표 3〉 본검사-요인간 피어슨 상관행렬

| 영역 | 문항 번호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요인5 | 요인6 |
|-------------------|----------|-------|-------|-------|-------|-------|-------|
| 환경 요인 | Q1 | 0.717 | | | | | |
| | Q2 | 0.711 | | | | | |
| | Q3 | 0.726 | | | | | |
| | Q4 | 0.688 | | | | | |
| | Q5 | 0.734 | | | | | |
| | Q6 | 0.582 | | | | | |
| | Q7 | 0.619 | | | | | |
| | Q8 | 0.556 | | | | | |
| 교육 과정 요인 | Q9 | | 0.861 | | | | |
| | Q10 | | 0.885 | | | | |
| 교사 요인 | Q11 | | | 0.749 | | | |
| | Q12 | | | 0.746 | | | |
| | Q13 | | | 0.760 | | | |
| 책임 경영 요인 | Q14 | | | | 0.808 | | |
| | Q15 | | | | 0.867 | | |
| | Q16 | | | | 0.838 | | |
| 학교장 요인 | Q17 | | | | | 0.807 | |
| | Q18 | | | | | 0.847 | |
| | Q19 | | | | | 0.717 | |
| | Q20 | | | | | 0.445 | |
| 사이버 학습체제 요인 | Q21 | | | | | | 0.889 |
| | Q22 | | | | | | 0.905 |
| | Q23 | | | | | | 0.860 |
| 고유치 | 6.51 | 3.29 | 1.91 | 1.65 | 1.27 | 1.07 | |
| 분산(%) | 28.29 | 14.17 | 8.34 | 7.18 | 5.23 | 4.64 | |
| 누적(%) | 28.29 | 42.46 | 50.80 | 57.97 | 63.50 | 68.14 | |

4.3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후에 이루어진 확인적 요인분석(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이론적 배경 하에서 추출된 변수들 간 설정된 관계의 성립여부를 실증하는 데 사용되어 확정 또는 확인적인 목적을 갖는 통계 방법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경로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관측변수와 잠재변수간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을 측정하였는데, 이 확인적 요인분석 작업에서 환경요인 8문항, 교육과정요인 2문항, 교사요인 3문항, 책임경영요인 3문항, 학교장요인 4문항, 사이버학습체제요인 3문항이 측정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조정부합치(AGFI: Adjusted GFI), 원소간 평균차이(RMSR: Root Mean Square Residual), 근사평균 자승오차(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 = 438.28(\chi^2/df=2.04)$ RMR=0.05,

$p=0.000$ 이며, GFI=0.87, AGFI=0.84, IFI=0.92, TLI=0.90, CFI=0.92 등이 되어 모델 적합도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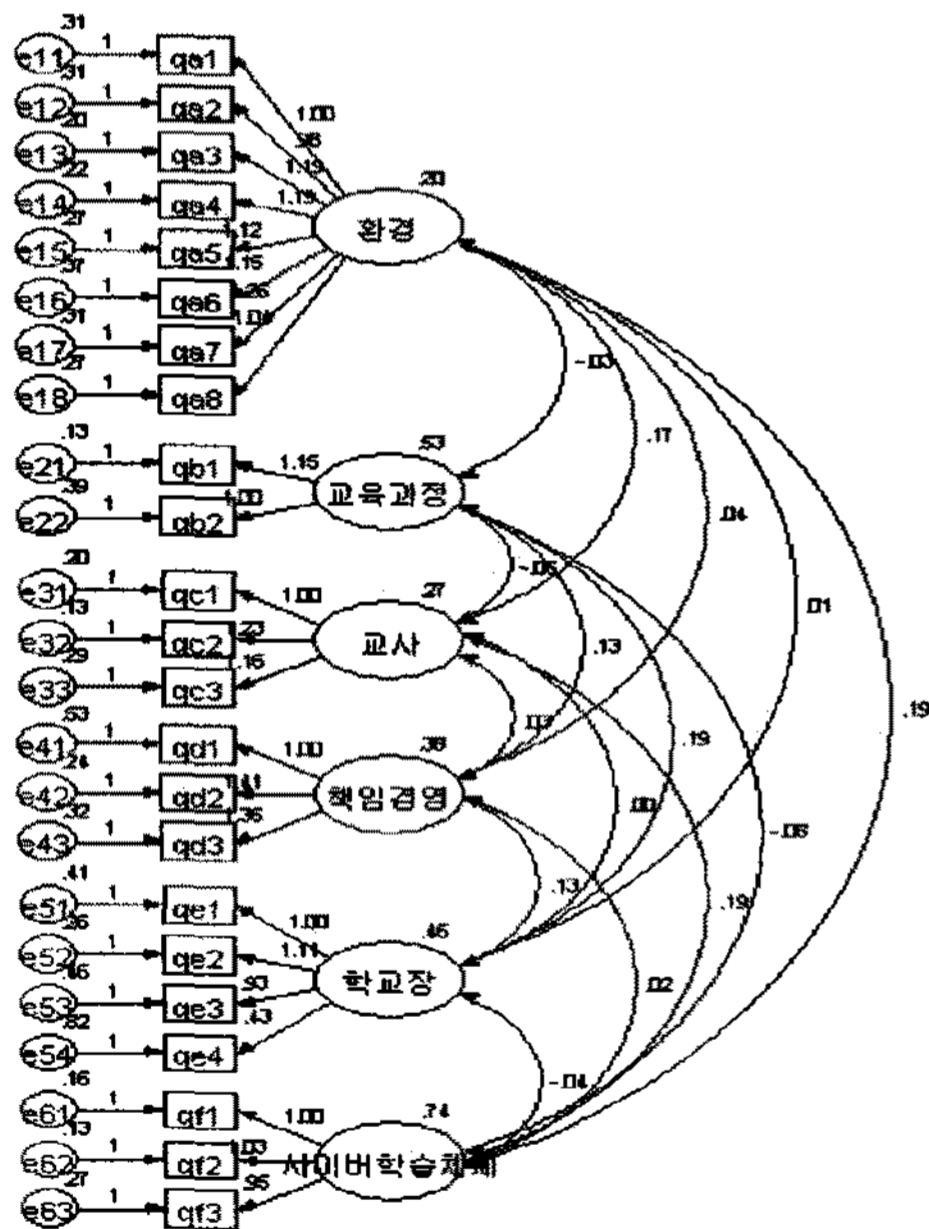
| 변 인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SE | CR | P |
|---------------|------------|-----------|------|-------|------|
| 환경요인 | | | | | |
| 환경요인 ->qal | 1.00 | 0.62 | - | - | - |
| 환경요인 ->qa2 | 0.98 | 0.62 | 0.55 | 3.07 | 0.00 |
| 환경요인 ->qa3 | 1.19 | 0.76 | 1.01 | 3.27 | 0.00 |
| 환경요인 ->qa4 | 1.19 | 0.75 | 0.67 | 3.30 | 0.00 |
| 환경요인 ->qa5 | 1.12 | 0.70 | 0.13 | 8.97 | 0.00 |
| 환경요인 ->qa6 | 1.15 | 0.65 | 0.14 | 8.39 | 0.00 |
| 환경요인 ->qa7 | 1.26 | 0.71 | 0.14 | 9.04 | 0.00 |
| 환경요인 ->qa8 | 1.04 | 0.67 | 0.12 | 8.64 | 0.00 |
| 교육과정요인 | | | | | |
| 교육과정요인 ->qbl | 1.00 | 0.92 | - | - | - |
| 교육과정요인 ->qb2 | 1.15 | 0.76 | 0.17 | 6.84 | 0.00 |
| 교사요인 | | | | | |
| 교사요인 ->qcl | 1.00 | 0.75 | - | - | - |
| 교사요인 ->qc2 | 1.23 | 0.87 | 0.10 | 12.74 | 0.00 |
| 교사요인 ->qc3 | 1.16 | 0.75 | 0.10 | 11.09 | 0.00 |
| 책임경영요인 | | | | | |
| 책임경영요인 ->qdl | 1.00 | 0.64 | - | - | - |
| 책임경영요인 ->qd2 | 1.41 | 0.87 | 0.14 | 10.15 | 0.00 |
| 책임경영요인 ->qd3 | 1.36 | 0.83 | 0.14 | 9.90 | 0.00 |
| 학교장요인 | | | | | |
| 학교장요인 ->qel | 1.00 | 0.73 | - | - | - |
| 학교장요인 ->qe2 | 1.11 | 0.82 | 0.11 | 10.22 | 0.00 |
| 학교장요인 ->qe3 | 0.93 | 0.68 | 0.10 | 8.92 | 0.00 |
| 학교장요인 ->qe4 | 0.43 | 0.30 | 0.10 | 4.25 | 0.00 |
| 사이버학습체제 | | | | | |
| 사이버학습체제 ->qf1 | 1.00 | 0.91 | - | - | - |
| 사이버학습체제 ->qf2 | 1.03 | 0.93 | 0.05 | 22.29 | 0.00 |
| 사이버학습체제 ->qf3 | 0.95 | 0.84 | 0.05 | 18.52 | 0.00 |

$\chi^2=438.28, \chi^2/df=2.04, RMR=0.05, GFI=0.87, AGFI=0.84, IFI=0.92, TLI=0.90, CFI=0.92$

또한 항목들이 위 <표 4>에서와 같이 잠재변수에 대해 좋은 요인부하량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값, t(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의 값이 1.965이상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GFI(기초적합도지수), CFI(비교적합지수) 등이 0.90이상이고, AGFI(조정적합도지수)는 0.85이상, χ^2 의 대안 값인 χ^2/df 가 0.5

이하이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본다. 위의 결과는 거의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GFI가 0.87로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0.90에 못 미치지만, 모형적합도에 근접한 것으로 보았다. 아래 <그림 1>은 좋은 학교 척도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나타낸 것으로 6개 핵심하위요인과 23문항에 대한 설명량을 나타내고 있다. 각 요인을 설명하는 해당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종 좋은 학교 척도의 핵심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는 위의 <표 2>에서와 같이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렇게 확인적 분석결과 좋은 학교 최종 척도는 23개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그림 1> 확인적요인분석결과 : 연구모형

5. 논의 및 제언

5.1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효과성 연구 및 학교개선(개혁) 연구의 국내외 성과들을 종합하여, 한국의 교육적 환경에 적합한 좋은 (중등)학교에 대한 재개념화 및 모형구축, 측정도구(척도) 개발 및 타당화였다.

연구절차는 관련문헌 검토를 통해 추출된 5가지 이상의 관점에서 한국에서의 좋은 (중등)학교의 재개념화를

시도하고, 이에 따라 좋은 학교 모형의 핵심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사전검사문항 109개를 작성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비·본검사에서 통계학적으로 반복분석하고 처리하여 한국에서 좋은 중등학교 모형의 하나를 구성하는 핵심요인과 유의한 하부문항을 검증·확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 통계처리는 이론적 선행연구와 수차의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사전문항 109문항을 작성하고 사전설문 결과에 의거하여 요인수를 8개로 추출하였으며, 예비검사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과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핵심요인은 6개, 유의한 항목은 65개로 정교화하고, 6개의 핵심요인을 조작적으로 재정의 하였다. 이어, 예비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핵심요인에 23문항으로 확정되었고, 검사의 전체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도 0.87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검사단계에서 이루어진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GFI(기초적합도지수), CFI(비교적합지수) 등이 0.90이상이고, AGFI(조정적합도지수)는 0.85이상이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각각, 0.87/0.92/0.84가 되고, 특히 χ^2 의 대안 값인 χ^2/df 가 0.5이하인 0.24가 되어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모형적합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좋은 학교 척도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나타내어 본 결과 <그림 1> 좋은 학교를 구성하는 6개 핵심요인은 각각의 세부문항들에 대해 설명량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었다. 각 요인을 설명하는 해당문항의 요인부하량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최종 좋은 학교 척도의 핵심 하위요인간 상관계수는 본 검사의 <표 2>에서와 같이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인적 분석결과 좋은 학교를 가늠하는 최종척도는 6개 핵심하위요인에 23문항으로 확정되었다.

5.2 논의 및 제언점

좋은 중등(중·고)학교 검사도구(척도)를 개발함으로써 더 큰 범주의 좋은 학교 일반모형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본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논의 및 제언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좋은 학교 검사도구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그 연구의 수가 적고, 연구대상의 표집범위가 좁았다. 둘째, 연구의 관점이 범위가 학교교육범주의 일면적 영역에 치우쳐 있고, 연구의 범주적 대상이 학생과

교사중심이어서 좋은 학교를 체제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문헌연구의 범위가 좁고, 연구관점 또는 성향이 지나치게 외국의 학교효과성 연구결과에 근거하거나 지나치게 외국의 교육개혁 및 대안교육론에 기대어 정작 우리 한국의 교육사와 철학에 근거한 방향제시 및 시사점 발견에 관심이 저조했다. 넷째, 연구목표가 지나치게 한국의 과열된 입시중심교육을 옹호하거나 결과중심의 학교효과성연구 편향적이거나, 그와는 정반대로 긴 세월 지켜온 공교육의 장점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 개혁 및 대안학교를 지지하는 편향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다섯째, 연구의 이론적 관점에서, 외국의 교육개선 이론이나 실패한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도입·소개하고 있어, 21세기 한국교육 환경과 교육의 본질차원을 조화롭고 폭넓게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도입하는데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 역시 좋은 학교의 핵심요인을 6가지로 한정하여 복잡한 교육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킨 점, 연구대상과 표집범위의 협소함 등으로 인해 위의 모든 결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하나의 시론에 그쳐, 지속적인 제이 재삼의 모형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면, 좋은 학교란 궁극적으로 세금부담자인 구가 및 지역민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장학사, 지역교육 책임자 등이 원하는 학교들 사이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본 연구의 좋은 학교 재개념화와 검증은 통한 핵심요인 및 척도개발 작업은 좋은 학교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보다 일반화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성격상 보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마땅하나,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점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 [1] 강명희, 강인에, 송상호, 임철일, 조일현, 최수진, 허희옥(2007), E-러닝 콘텐츠설계, 서현사.
- [2] 강숙희(2007), 기존 학교의 지원체제로서의 초·중등 사이버학교도입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교육공학연구, 23(1), pp. 97-119.
- [3] 강승규, 안순억, 정훈(공저, 2004), 즐거운 삶터 방안 연구(연구자료). 서울: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키워드: 교육환경, 학생인권, 학생자치, 학생자율.
- [4] 강태중 외(1997.7), 새학교 구상: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현방안 탐색, 교육개발108, pp. 82-85, 한국교육개발원
- [5] 강태중(1996). 좋은학교를 만드는 교육연구. 교육개발100, pp. 50-53. 한국교육개발원
- [6]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정책국編(2002. 7.8).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學校圖書館 生活化 綜合方案. 圖書館文化, 43(4), pp. 98-110. 韓國圖書館協會
- [7] 교육인적자원부편(2006). e-러닝 혁신 브랜드 개발·관리방안 연구:함께 하는 즐거움(정책연구과제). 서울: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지정-24. 저자주기: 연구책임자 김유경.
-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연구책임자:김광선, 2000), 공학기술교육의 혁신방안(연구자료),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키워드: 과학기술인력, 공학기술자양성, 공학기술교육체계, 공, 학 교육개혁출처: <http://www.pacst.go.kr>
- [9] 김경근(2005), 한국사회 변동과 교육, 문음사
- [10] 김정자(1996.10), 수준별교육과정의 한국형 모형탐색, 教育學研究34, 5, pp. 353-369. 韓國教育學會
- [11] 김동석(2004. 8), 학교정책의 비전설정을 위한 좋은 학교개념 탐색, 교육연구 12(1), pp. 1-25. 대전: 한남대학교교육연구소
- [12] 김성열(2007. 6).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운영위원의 역할: 좋은 학교 만들기과 학교구성주체들의 역할과 학교운영위원회, 통권87호, pp. 15-34. 서울: 주간교육신문사
- [13] 김재범(1989). 좋은학교만들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역할. 教育管理技術225(89.8), pp. 118-124. 한국교육출판
- [14] 김정돈(97.9),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사회와 가정과 학교의 역할, 교육제주97, pp. 33-37, 제주도 교육청
- [15] 김정원 외(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모델개발 연구(연구자료, 총서: 수탁연구 CR2007-2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키워드:교육특구사업, 교육복지, 출처: <http://public.kedi.re.kr>
- [16] 김정한(2002),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 교육경남, 149, 통권166호(2002여름), pp. 16-19, 경상남도교육청
- [17] 김정호(2006. 6), 신바람 나는 좋은 학교 만들기를 통한 학교경영성과, 대구교육, 43, pp. 104-108, 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 [18] 김희대(2003. 5), 학교 공동체를 바로 세우자: 좋은 교사 및 좋은 학교 만들기, 새교육, 통권583, pp. 34-40, 한국교육신문사.
- [19] 김희수, 계수정, 황미구 역(2000), 좋은 학교를 만드는 비결,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20] 나일주(2007), 교육공학이론, 교육과학사.
- [21]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2007.10.10), 미래교육비전과 전략(확정·발표안), 교육혁신위원회. 키워드: 교육개혁, 평생학습정책, 사회통합, 미래학습사회, 교육통합, 교육혁신
- [22]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2007.8.16), 미래교육비전과 전략(안), 서울: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키워드: 교육개혁, 평생학습정책, 학습사회, 교육통합, 교육혁신. 출처: <http://www.cein.go.kr>
- [23] 류연수(2006.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정·운영, 서울교육, 48(2), 통권 183(2006여름), pp. 64-69.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24] 박갑수(2002), 좋은 학교, 좋은 교장 그리고 바른 교육을 위하여, 초등교육, 12(2002봄), pp. 136-142, 한국초등교장협의회.
- [25] 박건춘(朴建春, 1995.8), 교사·학부모의 학교조직효과성준거 인식에 관한 연구, 청원군: 韓國敎員大大學院敎育행정 석사논문.
- [26] 박병량(2006), 학교발전과 변화: 이론, 연구와 실제, 서울: 학지사.
- [27] 박병량, 주철안(2005), 학교·학급경영(개정판), 서울: 학지사.
- [28] 박세일, 김승포, 박정수(2007), 평생학습사회 만들기: 교육에서 학습으로(연구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육개혁포럼 공동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9] 박소연(2002.8). 전략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경영요소에 관한 연구:한국, 미국, 일본,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고양시: 한국항공대경영대학원 항공경영학 석사논문
- [30] 박숙희, 염명숙(2002),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 [31] 박의수(2007), 좋은 교육의 준거에 관한 철학적 고찰, 敎育哲學, 38, pp. 67-84, 敎育哲學會.
- [32] 박정자(1998.8), 좋은 선생님, 질적 學習의 秘訣: 선택 이론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敎育研究 349, pp. 18-22, 韓國敎育生産性研究所敎育研究社
- [33] 백현기, 하태현(2007),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사이버 가정학습 몰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 [34] 부공남(2007.4.3), i-좋은 학교 운영 현황 및 제언, 교육제주, 제133호(2007년봄), pp. 41-43, 제주도교육청.
- [35] 부상호(2007.4), i-좋은 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제주, 133(2007봄), pp. 44-47, 제주도 교육청.
- [36] 서남수(2006. 6), 교육격차의 원인과 해소 방안, 서울교육. 48(2), 통권183호(2006 여름), pp. 58-63,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37] 석성환(2003), 효과적 고등학교경영에 대한 한·미 비교분석, 세종대학원박사논문.
- [38] 성태제(2006), 학교교육평가, 학지사.
- [39] 소경희(2005),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학사.
- [40] 안옥찬(1999.12), 좋은학교 만들자, 學校經營12(12), pp. 74-78, 韓國敎育生産性研究所.
- [41] 오귀남(2001.2). 현실요법을 적용한 예비교사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홍익대 대학원교육상담 박사논문.
- [42] 유대균(2006.2), 연구학교 평가모형개발 연구, 강원대 대학원교육학 박사논문.
- [43] 유재봉(2007), 좋은 교육, 서울: 문음사.
- [44] 이기범(2001.7), 좋은 학교의 교육철학·문화. 敎育理論과 實踐, 11(1), pp. 55-75, 경남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 [45] 이영진(2006.9). 학교경영의 새로운 지평 :블루오션 전략면에서의 탐색과 전망. 교육연구정보, 통권50, pp.62-71. 춘천: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 [46] 이정선(2006), 효과적인 학교교육론, 한국학술정보(주).
- [47] 이종각(2001. 12), 교육체제의 개혁요소와 개혁수단 발견을 위한 전략, 敎育研究, 12, pp. 117-133. 江原大學校敎育研究所
- [48] 장은정, 정영란, 서윤경(2007), 원격대학 성과분석연구, 교육공학연구, 23(2), pp. 67-104.
- [49] 장혜자(2004), 학교평가모형, 학교·교육기관 평가, 서울:한국문화사.
- [50] 정근영(2006), 좋은교육, 좋은세상: 서울교육혁신실천 우수사례집, 부산: 글꽃.
- [51] 정기섭(2004), 좋은 학교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

- 독교육학연구, 9(2).
- [52] 정진곤(2002), 초·중등 교육개혁의 추진실상과 보완방향: 교육개혁의 평가와 향후과제, 교육개혁포럼심포지엄 자료집, pp. 13-45.
- [53] 정진환(2003. 5), 교사 자율성 확대돼야 한다, 새교육, 통권 583, pp. 28-33, 한국교육신문사.
- [54] 정택희, 김주후, 김주아(2004), 학교평가 종합발전방안연구(연구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공편, 키워드: 교육개혁, 학교교육, 학교평가, 학교경영평가, 신교육
- [55] 조난심(2003), 학교내실화의 의미, 아시아교육연구, 4(2).
- [56] 조난심(2003.4). 학교교육 위기론을 통해 본 학교교육 내실화의 의미. 아시아교육연구 4(2), 통권7, pp. 237-253, 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원
- [57] 조순옥(2002.8), 사립중등학교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교육경영관리대학원 학교경영석사논문
- [58] 최진성(2004.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로 좋은 학교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통권53호, pp. 11-17. 서울: 학교운영위원회.
- [59] 황채석, 여영운, 심재소, 김진학, 정미자, 김미희, 이영신, 김정희(2007.6).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방안모색(토론자료). 교육경남. 제169호 통권186호(여름), pp. 168-178. 창원:경상남도교육청
- [60] Ainscow, M., Hopkins, D., Southworth, G., West, M.(1994). Creating the conditions for school improvement. London: David Fulton Publishers.
- [61] Bain, K.(2004), What the best college teachers do, Harvard Uni. Press.
- [62] Bersin, J.(2003), The Blended Learning Book, John Wiley & Sons, Inc.
- [63] Borich, G. D.(2007), Effective Teaching Methods(6), Pearson.
- [64] Clark, R. C., Mayer R. E.(2003), e-Learning and the science of instruction, John Wiley & Sons, Inc.
- [65] Clickman, R. G., Gordon, S. P., R-Gordon, J. M.(2007), Supervision & Instructional Leadership(7th ed.), Pearson. pp. 89~93
- [66] Davison, G. V., Ramussen, K. L.(2006), Web Based Learning, Ohio; Pearson, p. 11.
- [67] Ellsworth, J. B.(1999-2000), Surviving change, ERIC, the E. R. I. Center.
- [68] Fullan, M. with Stiegelbauer, S. (1991), 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2n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69] Glasser, N.(1989), The control theory in the practice of reality therapy, People and People pub.
- [70] Hall, G. E., Hord, S. M.(2006), Implementing Change. Pearson E. Inc..
- [71] Hargreaves, D. H., Hopkins, D. (1991). The empowered school: the management and practice of developing planning. London: Cassell.
- [72] Hopkins, D.(2001).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all: the theory and practice of school improvement> London: David Fulton.
- [73] Hopkins, D.(1990). The international school improvement Project(ISIP) and Effective Schooling: Towards a Synthesis. *School Organization*, 10(3), pp. 129-194.
- [74] Hopkins, D.(1994), Institutional Self-evaluation and Renewal, In Husen, T. & Postlethwaite, N., (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education, New York: Pergamon Press.
- [75] Hoy, W. K., Miskel, C. G.(2007), Educational administration(7th ed.), McGraw-Hill Inc..
- [76] Levine, E.(2002), One Kid at a Time-Big lessons from a small school, Teachers colleges Press.
- [77] Mcneil, J. D.(2006), Contemporary curriculum(6th), John Wiley & Sons, Inc.
- [78] Mortimore, P.(ed.)(1999). Understanding pedagogy and its impact on learning. London: Paul Chapman Publishers.
- [79] Murphy, J.(1991), Restucturing schools: capturing and assessing the phenomena,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80] Norton, M. S.(2005), Executive Leadership for Effective Administration, Pearson, pp. 51~53
- [81] Pinar, W. F.(2005), What is curriculum theor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82] Reynolds, D., Teddlie, C. (with Hopkins, D. &

Stringfield, S) (2002), Linking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In Teddlie, C. & Reynolds, D.,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chool effectiveness research), New York: Falmer Press).

- [83] Richard, G., Judy, A., Snowden, P.(2007), School Leadership & Administration Important Concepts(7th ed.), McGraw Hill.
- [84] Rose, C., Nicholl, M. J.(1997), Accelerated Learning for the 21st Century. Delacorte Press.
- [85] Slavin, R., Madden, N., Dolan, L., Wasik, B., Ross, S., Smith, L., Dianda, M.(1996). Success For All: a summary of research.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Places at Risk*, 1(1), pp. 44-76.
- [86] Sullo, R. A.(1997), Inspiring Quality in your School, N. E. A. of U.S.
- [87] Tanner, D., Tanner, L.(2007), Curriculum Development-Theory into Practice, Pearson, pp. 481-499.
- [88] Teddlie, C., Stringfield, S., Wimpelberg, R., Kirby, P.(1989), Contextual differences in models for effective schooling in the USA, In B. P. M. Creemers.



정 순 모

- 198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어학과(영어/프랑스어)
 198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불어불문학과(불문학석사)
 1999 중앙대 신방대학원 연극영화학과(연극영화학석사)

2006~현재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과정

1980~현재 현대고교사/연극연출가(약80편연출)/연극이론가(저서:동양전통연극외1)/제6차고교프랑스어교과서(청암미디어)/경성중·고총동문회(2~3대 회장,현고문)/극단실험연출가/극단수업대표/(사)한국교사연극협회창립(1~2대회장)

관심분야 : 교육철학, 이러닝정책, 학교정책컨설팅

E-mail : soonmo52@empal.com



백 현 기

- 전북대학교(교육학 박사)
 현재 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교과서, 이러닝, USN, U-class, U-city

E-mail : teach21@paran.com